

“ 주님, 왜 우십니까? ”

■ 이종윤 원로목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올라 하신 주님께서 왜 울고 계십니까? 여 자여 울지 말라 하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의 눈가에 왜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까? 배신의 쓴잔을 받으시면 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뚝이 세워진 십자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찬가와 사랑과 찬평(讚評)을 해주시기보다 오히려 보시기에 민망하여 울고 계신 것입니까? 피 묻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찢은 원죄를 안고 싸구려 축복이나 팔고 고난 없는 성공품을 전매하며 신앙의 지조마저 상실한 변모된 이 시대의 교회 아닌 교회를 보시고 견딜 수 없 어 그토록 슬프게 보여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공(公)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익하고 지루하며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 삶은 전체가 예배라는 미명하에 공(公)예배는 가급적 축소 또는 대치시킬 소그룹 모임으로 바꾸고 친교와 기도회로 모여 효과적 실용성을 찾는 예배 아닌 집회를 강 조하며 흥미 중심 오락성 흥행물로 예배가 변질되고 있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 칭호보다 학문적 업적도 없이 박사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양강좌 수준보다 못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자칭 성직자라 하지만 자기 기본이나 내는 카우보이들이 되어 양의 머릿수나 세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괴로워 울고 계십니 까?

바산의 살전 암소 같은 년들아 하시던 아모스 선지자와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던 세 례 요한이 없어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앞잡이로 변신한 가롯 유다 와 그의 후손들을 생각하시고 안타까워 아직도 울고 계십니까? 21세기 첨단과학이 사람들 을 광분시키고 혁명적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터에 당신의 피조물들이 점차 변영과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이 울고 계시니 어찌 된 것입니까?

질병과 재난, 굶주림과 억눌림에 울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교회 확장이나 하는 것을 주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소욕에 찬 지도자들과 희생 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 싸움이나 하고 심지어 금권과 폭력까지 동원하여 교회를 점령하려 하니 불거진 등잔이요, 맛 잃은 소 금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비통한 모습을 보시고 차라리 하는 마음까지 드셨기에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이 그토록 슬프게 보인 것입니까?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불의가 참을 꺾박하고 거짓이 진리를 조롱하는 세대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주님 앞에 무릎꿇고 비읍나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놈부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으 시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옵소서! 근심감이 자랑감 되게 하옵시고 일감이 일꾼 되고 실사 오니 주님의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한국장로신문 [1286호] 2011년 8월 6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 Chan Yoo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3:1-21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New Birth and New Life"	Pastor
* Hymn	2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 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둠(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 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 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땅 땅 쩌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무 키움 랑 호라 레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 (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정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쯔 수관뽕 방글라데세, 김택실 윤왕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Park, No Cheol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씨뿌리는 사람 비유 ”

■ 막 4:1-12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있는 비유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와 오고 있는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1.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과 성경 박사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 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곧 세리, 창기, 죄인들, 귀머거리, 귀신들린 자 병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기 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 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며 앞으로 살 또한 계획하고 계심을 알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막 4:12). ‘너희와 외인’ 은 하나님 나라 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돌이키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고, ‘외인’ 은 하나님 나라에 들 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계속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아닌 너희와 외인의 구분, 곧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의 두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체형적이어서 진리에 속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변화의 삶을 살 게 됩니다. 비유에 나타난 길가, 가시밭, 돌씨밭 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위험요소와 함정들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후 찾아오는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길들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 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한 조각의 파편과 같아서 파편들이 모자이크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통합적으로 되어가 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분과 자비한 손과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 분에게 나를 내어주고 순종과 포기 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분과의 사귄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강박감에 서 벗어나게 되고, 영적인 영역이 자꾸 넓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 상처 가 많고, 예민하고, 조그만 일에도 참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귄이 깊어지면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세상이요 극진히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로 있다고 하는 새로운 이해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서 삶이 점점 소박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과 단순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30,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맺는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면 삶의 행보의 방향과 축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돌이켜 보시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 두시면서 승리의 삶을 배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은 현실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주 임영수 목사 설교요약

